

중국 산둥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전망

이 호 (중국 산둥사범대)

< 목 차 >

- | | |
|-------------------|---------------------|
| 1. 문제제기 | 4. 한국어교육의 발전방향 및 전망 |
| 2. 산둥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 | 5. 결론 |
|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국문초록

본고는 중국 산둥지역 내 각 대학 한국어학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발전 방향 및 전망을 제시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어 인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지역은 한국어교육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현재 산둥지역에는 국립대학, 전문대학 및 사립대학을 포함한 40여개의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는 종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보통 4년제인데 비하여 전문대학이나 사립대학은 주로 실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보통 3년제이다. 이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 수는 약 6,000명 정도이며 해마다 약 1,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2010년 이후 졸업생의 취직이 어려워져 한국어학과 학생 수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급격히 발전해 왔던 산둥지역의 한국어교육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와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산둥지역 한국어학과 교육목표, 교원의 자질, 교수법의 선진화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어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현재 중국 산둥지역의 한국어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한국어 언어중심의 교육에서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중심의 교육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중국 한국어교육, 산둥지역, 현황, 문제점, 전망

1. 문제제기

중국 산둥(山東)지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산둥지역은 오랜 옛날부터 한반도와의 교류가 매우 빈번했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산둥지역과 한국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활발한 양상을 띠게 된 바,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발전하면서 산둥지역은 중 한 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산둥지역과 한국의 이러한 밀접한 교류관계는 산둥지역의 한국어 인재 수요를 급증시켰으며 이에 따라 산둥지역은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한국어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200여 곳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약 4분의 1 가량이 산둥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여러 국립대학과 전문대학, 사립대학에 설치되기 시작한 한국어학과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한국어교육의 미래는 어떤지,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고민하고 있다.

본고는 2009년 본인 외 칭다오대학의 지수용, 최계화 교수가 중국 내 한국어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산둥지역 각 대학 한국어학과

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할 내용을 각 대학의 한국어학과 책임자에게 보내 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 후 이를 다시 확인하고 통계 및 분석을 진행했다. 거리가 가까운 대학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나 먼 거리의 학교는 주로 이메일 및 전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고는 당시의 조사 결과를 참고로 중국 산둥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앞으로 중국의 한국어교육의 전망을 밝히고자 한다.

2. 산둥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현재 그 규모나 수준 등 여러 면에서 놀랄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어 인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각지에 한국어교육기관이 대량으로 설립되고 있는데 산둥지역의 한국어교육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1.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어 있는 대학들

한·중 수교 후 산둥지역의 한국어교육은 끊임없는 발전을 해 왔으며 교육 기관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현재 산둥지역에 한국어를 전공으로 가르치는 대학만 40여 개에 이른다. 이 밖에 일부 야간대학과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학 과정 검정고시에도 한국어가 전공으로 설립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개인 학원에서도 한국어 학습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산둥지역 내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들과 설립년도를 도표로 표시한 것이다.

<표1>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산동지역 국립대학(4년제)

	대학 명칭	도시	학과소속 및 명칭	설립 연도
1	山東大學	지난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1992
2	中國海洋大學	칭다오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1992
3	煙台大學	엔타이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1992
4	山東師範大學	지난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1994
5	靑島大學	칭다오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1995
6	山東大學 威海分校	웨이하이	韓國學院 韓國語係	1995
7	魯東大學	엔타이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1999
8	聊城大學	리아오청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2002
9	濟南大學	지난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2003
10	哈爾濱工業大學 威海分校	웨이하이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2003
11	靑島大學 國際學院	칭다오	國際學院 韓國語系	2004
12	維坊學院	웨이팡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2004
13	靑島農業大學	칭다오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2005
14	曲阜師範大學 日照分校	얼자오	東語學院 韓國語係	2005
15	靑島科學技術大學	칭다오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2006
16	靑島理工大學	칭다오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2006
17	山東理工大學	쯔보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2006
18	山東工商學院	엔타이	外國語學院 韓國語係	2008

<표2>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산동지역 공립 전문대학(3년제)

	대학 명칭	도시	학과소속 및 명칭	설립 연도
1	山東科學技術職業學院	웨이팡	外國語學院 應用韓國語	1997
2	威海職業學院	웨이하이	應用外語係學 應用韓國語	2000
3	山東省青年政治學院	지난	外國語係 應用韓國語	2001
4	日照職業技術學院	얼자오	外國語係 應用韓國語	2004
5	靑島港灣職業技術學院	칭다오	外國語係 應用韓國語	2004
6	淄博職業學院	쯔보	國際學院 應用韓國語	2004

	대학 명칭	도시	학과소속 및 명칭	설립 연도
7	靑島職業技術學院	칭다오	國際學院 應用韓國語	2004
8	山東外貿職業學院	칭다오	商務外語係 商務韓國語	2004
9	維坊職業學院	웨이팡	應用外國語係 應用韓國語	2005
10	山東經貿職業學院	웨이팡	應用外國語係 應用韓國語	2005
11	山東旅遊職業學院	지난	旅遊外國語係 應用韓國語	2005
12	靑島酒店管理學院	칭다오	旅遊酒店管理學院應用韓國語	2005
13	淄博師範高等專科學校	쓰보	外國語教育係 應用韓國語	2006
14	山東省農業管理幹部學院	지난	外國語係 應用韓國語	2006
15	山東信息職業技術學院	웨이팡	管理係 應用韓國語	2006
16	靑島廣播電視大學	칭다오	高職高專	2006
17	山東電子職業技術學院	지난	管理應用外語係 應用韓國語	2006
18	山東商業職業技術學院	지난	外語學院 應用韓國語	2006
19	山東女子學院	지난	應用外國語係 應用韓國語	2007
20	煙台職業學院	엔타이	外國語學院 應用韓國語	2007
21	山東凱文科技職業學院	지난	外國語學院 應用韓國語	2007

<표3>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산동지역 사립대학(일부 관민합영대학 포함)

	대학 명칭	도시	학과소속 및 명칭	설립 연도
1	靑島濱海學院	칭다오	東語係 應用韓國語	1999
2	山東外事翻譯學院	지난	外國語學院 應用韓國語	1999
3	山東外事翻譯學院(威海)	웨이하이	外國語學院 應用韓國語	2001
4	靑島恒星職業技術學院	칭다오	國際學院 應用韓國語	2001
5	煙臺南山學院	엔타이	外事翻譯學院應用韓國語	2003
6	靑島黃海職業學院	칭다오	外國語係 應用韓國語	2004
7	山東聖翰財務職業學院	지난	外國語學院 應用韓國語	2004
8	煙臺大學 文經學院	엔타이	外國語言應文學係	2004
9	中國海洋大學 靑島學院	칭다오	外語係	2005
10	山東師範大學 歷山學院	지난	朝鮮語(韓國語)專業	2006

위의 표들에서 드러나듯이 중국 산둥지역의 한국어교육기관은 그 수가 많고 운영 방식과 교육 수준도 다양하다. 그 중에는 국립대학이 있는가 하면 공립 전문대학도 있으며, 민영 사립대학도 많다. 국립대학은 대부분 외국어 학원(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어학과로 설치되었고, 전문대학이나 사립대학의 경우 대부분 실용한국어학과로 설립되어 있다. 즉 교육방향, 목적에 대한 설정에서 국립대학은 전면적으로 발전한 종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립대나 전문대의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을 그 목표로 삼고 있어서 목적성이 더 뚜렷하다.

한국어학과 설립 시기를 살펴보면 국립대학은 주로 1992년 한·중 수교 직후에 설립된 것이고 전문대학과 사립대학은 2005년 전후(前後)에 설립된 것이 많다. 특히 2005년 전후(前後)에 국립대학이나 전문대학, 사립대학의 한국어학과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양국간의 밀접한 경제문화교류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당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대학들의 규모 확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지역적 상황을 보면 칭다오와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웨이팡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바, 산둥성의 성도(省都, 한국의 도청에 해당됨)인 지난(濟南)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중 교류가 밀접한 연해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2.2. 중국 산둥지역의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은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교육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산둥지역 한국어학과 교원의 구성, 학력, 전공 및 민족 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어교원의 구성 및 인원수

산둥지역 한국어교원들의 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 산동지역 한국어교원의 구성 및 인원수

	전임 교원	임시 교사	원어민 교사	합 계
국립대학	143 (71.5%)	1 (0.5%)	56 (28.0%)	200 (36.9%)
전문대학	100 (44.6%)	54 (24.1%)	70 (31.3%)	224 (41.3%)
사립대학	58 (49.1%)	29 (24.6%)	31 (26.3%)	118 (21.8%)
합 계	301 (55.5%)	84 (15.5%)	157 (29.0%)	542

위의 표를 보면 산동지역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은 542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는 전임교원(55.5%), 임시 교사(15.5%)와 원어민 교사(29.0%)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에는 임시 교사가 거의 없고 전임 교원(71.5%)과 원어민 교사(28.0%)가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과 사립대학에는 임시교사의 수(각각 24.1%, 24.6%)가 지나치게 많아서 한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학교의 상황을 놓고 보면 불균형적인 사례가 적지 않다. 국립대학의 경우 보통 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1~2명 정도인데, 산둥대학 웨이하이분교와 옌타이대학, 그리고 산둥이공대학, 웨이팡대학의 경우 원어민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에는 중국인 교원이 1~3명에 불과하고 원어민 교사나 임시 교사가 더 많은 학교가 9곳이나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어학과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고 높은 학력의 한국어교원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앞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학력과 전공분야

산동지역 한국어 전임교원들의 교육 정도와 학력 취득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산동지역 한국어 전임교원들의 학력 수준

	국립대학	전문대학	사립대학	합 계
박 사	47 (32.9%)	2 (2.0%)	3 (5.2%)	52 (17.3%)
석 사	79 (55.2%)	36 (36.0%)	7 (12.1%)	122 (40.5%)
학 사	17 (11.9%)	61 (61.0%)	47 (81.0%)	125 (41.5%)
기 타	0 (0%)	1 (1.0%)	1 (1.7%)	2 (0.7%)

위의 표는 2009년의 조사 결과로, 현재는 당시의 상황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본 산동사범대학 한국어학과를 예로 들면 조사 당시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무하였으나 현재 한국어교원 9명 중 박사 소지자는 5명, 박사과정 수료자는 3명으로 늘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의 한국어교원들은 대부분 박사나 석사학위를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과정에 있어서 석박사의 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동대학, 산동사범대학, 중국해양대학, 칭다오대학 등의 학교는 학력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한국어교원들의 학력 수준이 많이 뒤떨어진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심지어 석사도 없는 전문대학이나 사립대학이 9~10곳이나 될 만큼 분포가 매우 불균형적이다.

그리고 교원들의 전공 분야는 아래의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국어국문학을 위주로 한다. 전체 전임교원 301명 가운데 80.7%에 달하는 교원들이 국어국문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전공자는 19.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의 32.2%는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원들이다. 특히 국립대학 교원 중 절반에 가까운 63명(44.1%)이 한국 유학파라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표6> 산둥지역 한국어 전임교원들의 전공 분야

	국어국문학 및 한국어교육	경제, 사회 등 기타전공	그 중 한국에서 학위 취득자
국립대학	121 (84.6%)	22 (15.4%)	63 (44.1%)
전문대학	79 (79.0%)	21 (21.0%)	22 (22.0%)
사립대학	43 (74.1%)	15 (25.9%)	12 (20.7%)
합 계	243 (80.7%)	58 (19.3%)	97 (32.2%)

(3) 민족 구성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원어민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하는 조선족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한국어교원이 적었던 초창기에는 조선족 교원에 의존했던 한국어교육은 현재 수많은 한족(漢族) 교원들의 참여로 다양화되고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조선족과 한족 교원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 현재 산둥지역 한국어학과 교원들의 민족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7> 산둥지역 한국어학과 전임교원의 민족 비율

	조선족	한족	기타 민족
국립대학	68 (47.6%)	75 (52.4%)	0 (0%)
전문대학	18 (18.0%)	81 (81.0%)	1 (1.0%)
사립대학	17 (29.3%)	41 (70.7%)	0 (0%)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대학에서는 조선족과 한족 교원이 평균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개별 대학의 경우 불균형적인 현상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칭다오대학, 하얼빈공대 웨이하이분교는 100%가 조선족 교원이고 중국해양대학, 옌타이대학, 산둥대학도 조선족 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산둥사범대학, 웨이팡대학 등 4개의 대학에는 조선족이 한 명도 없고, 기타 5개의 대학에는 조선족 교원이 한 명뿐이다.

그리고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한족 교원이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 학교의 경우 5개의 사립대학과 13개의 전문대학에는 조선족이 한 명도 없다. 조선족이 없는 학교들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어민 교사

산동지역 한국어학과의 발전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산동지역 40여 개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교사는 150명 정도가 있는데 국어국문, 중문, 영문, 교육학 등 관련 전공자는 약 35%, 기타 전공자는 약 65%를 차지한다. 물론 원어민 교사가 꼭 국어국문학을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공분야가 너무 다르고 본인도 계속 공부하지 않는 한, 강의과정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강의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원어민 교사들은 종합한국어(강독)와 읽기 등의 과목을 제외하고 기타 거의 모든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가장 집중된 과목은 회화, 듣기, 쓰기, 시청각 수업 등이다. 이 밖에 한국문학사, 과학기술한국어, 무역한국어, 한국개황, 언어학 개론, 문법 등도 강의한다. 강의 시간은 대체로 12~16시간 정도이다.

2.3. 한국어 전공 학생

한 언어의 국제화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력에 달려 있다. 한국은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특히 중국과의 경제, 문화, 정치, 학술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중국인들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실리적, 학문적, 교양적 동기가 생겼고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 취업, 한국문화의 매력 그리고 한국 유학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열풍이 그만큼 현실적 기반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어 열풍의 전초 지역에 위치한 산둥지역에서 한국어는 영어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어종으로 부상되었다. 현재 산둥지역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 전문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수는 약 6,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해마다 약 1,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수는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지만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은 2007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다가 2010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졸업생의 취직이 어려워져 한국어학과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많은 전문대학이나 사립대학에서는 한국어학과 정원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모집 인원수에 대하여 하향 조정을 했다.

산둥지역 한국어학과 학생의 취업률이 90%에 가깝다는 통계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우영란¹⁾은 한국어학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표면적으로 나타난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고 한국어학과 졸업생들의 취업의 질과 취업 만족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어학과 졸업생의 취직 분야는 주로 중국 진출 한국회사와 중국회사, 공무원 및 교사, 그리고 자유직업 등이다. 중국 대학원 진학 및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도 많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학 졸업생들이 공무원 혹은 교사로 취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졸업생들은 중국회사보다 한국회사 취업률이 더 높다. 국립대는 한국의 대기업, 사립대는 중소기업에 많이 취직된다. 전문대학의 졸업생의 경우 한국회사보다 중국회사에 더 많이 취직한 것은 그만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국립대학 졸업생은 중국의 대

1) 우영란,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전망-산둥성의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 교육』 제73호, 한국어교육학회, 2006

학원으로 많이 진학하고 전문대학이나 사립대학 졸업생들은 중국 대학원로의 진학이 다소 어려우므로 대부분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어학과 졸업생이 해마다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한국에서 돌아온 중국유학생도 많아짐에 따라 머지 않아 한국어인재의 공급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 교과목 및 교재

조사에 의하면 산동지역 대학의 한국어학과가 개설하고 있는 주요 전공 교과목과 사용하고 있는 주요 교재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8> 중국 한국어학과의 주요 교과목 및 교재

교과목 및 시수	교재	사용 학교 수
강독(1~6) (종합 한국어 1~6) 8~10 교시/주	『韓國語教程』,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편, 세계도서출판사, 2007	20
	『標準韓國語』, 북경대학 등 25개 대학 공저, 북경대학출판사, 1996	16
	『초급 한국어』, 『중급한국어』, 『고급한국어』, 최희수 등, 요녕민족출판사, 2002	9
	『韓國語』(1~4), 이선환, 민족출판사, 2000	8
	『大學韓國語』(1~2), 우림걸 등, 북경대학출판사, 2007	5
	『韓國語』(1~4), 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2008	4
	『新標準韓國語』(고급1~2), 김중섭 외 4인,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2006	2
『延世韓國語』,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세계도서출판사, 2014	2	
강독(1~6)	『韓國語教程』,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편, 세계도서출판사, 2007	20
	『標準韓國語』, 북경대학 등 25개 대학 공저, 북경대학출판사, 1996	16

교과목 및 시수	교재	사용 학교 수
(종합 한국어 1~6) 8~10 교시/주	『초급 한국어』·『중급한국어』·『고급한국어』, 최희수 등, 요녕민족출판사, 2002	9
	『韓國語』(1~4), 이선한, 민족출판사, 2000	8
	『大學韓國語』(1~2), 우림걸 등, 북경대학출판사, 2007	5
	『韓國語』(1~4), 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2008	4
	『新標準韓國語』(고급1~2), 김중섭 외 4인,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2006	2
	『延世韓國語』,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세계도서출판사, 2014	2
회화(1~6) 2~4 교시/주	『初級韓國語會話』(상/하), 유춘희, 연변대학출판사	8
	『新標準韓國語』(초급/중급), 김중섭 외 4인,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2005	10
	『輕松學韓語』, 가나다한국어보습반, 북경대학출판사, 2006	5
	『韓國語會話教程』, 이민, 대련이공대학출판사, 2005	4
	『大學韓國語會話教程』, 장민, 북경대학출판사, 2006	4
듣기(1~6) 2~4 교시/주	『韓國語聽力教程』(초급/중급), 이성도,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2005	18
	『韓國語聽力教程』, 윤경애, 대련이공대학출판사, 2005	8
	『韓國語聽力教程』, 김수자, 상해외어교육출판사, 2007	4
	『新視線韓國語教程』, 성군관대학교, 북경언어대학출판사, 2007	4
읽기(1~6)	『韓國語읽기』(초급/중급/고급),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세계도서출판사, 2007	32

교과목 및 시수	교재	사용 학교 수
2~4 교시/주	『韓國語中級教程』, 안병호, 북경대학출판사, 1996	4
	『韓國語泛讀教程』, 문영자, 상해교통대학출판사, 2007	3
쓰기(1~2) 2교시/주	『韓國語쓰기』, 연세대, 세계도서출판사, 2007	11
	『韓國語應用文寫作教程』, 장광근, 요녕민족출판사, 1998	7
시청각 (1~2) 2교시/주	『韓國語視聽說』, 노성화, 흑룡강출판사, 2006	8
한국 문학사 4교시/주	『韓國文學史』, 윤운진 등, 산해교통대학출판사, 2008	8
	『朝鮮文學史』, 채미화 등, 연변대학출판사, 2008	1
	『韓國의 文學』, 김영금, 북경대학출판사, 2009	2
번역 4교시/주	『中韓翻譯教程』, 『韓中翻譯教程』, 장민 등, 북경대학출판사, 2005	15
	『韓漢互譯教程』, 이옥화 등, 대련이공대학출판사, 2006	4
문법 2교시/주	『韓國語基礎語法與練習』, 박선희, 북경대학출판사, 2008	4
	『面向外國人的韓國語語法』, 임호빈, 세계도서출판사, 2007	3
한국개황 2교시/주	『韓國概況』, 임종강, 대련이공대학출판사, 2005	9
	『韓國概況』, 이승매, 해양대학출판사, 2001	9
經貿 韓國語 4교시/주	『經貿韓國語』(2002), 『新編經貿韓國語』(2015), 이호, 외국어교학연구출판사	18
	『商務韓國語』, 서영빈, 상해교통대학출판사, 2006	3

위에서는 산둥지역의 대학들에서 개설하고 있는 주요한 전공 교과목과 사용하고 있는 주요 교재를 살펴 보았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수가 적지 않지만 사용률이 높은 교재는 몇 개 되지 않는다. 주요 교재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韓國語教程』, 『韓國語읽기』, 『韓國語쓰기』, 중국 25개 대학이 공저한 『標準韓國語』, 경희대학교 김중섭 외 4인이 공저한 『新標準韓國語』(초급/중급), 산둥대학 李成道の 『韓國語聽力教程』, 북경대학 張敏의 『中韓翻譯教程』와 『韓中翻譯教程』, 그리고 산둥사범대학 李浩의 『經貿韓國語』와 『新編經貿韓國語』 등이 있다.

산둥지역 한국어학과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전체적으로 보면 선택의 폭이 좁고 한국 교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공 과목과 응용 과목 교재의 종류가 적은 편이다. 아울러 교재의 질이 높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강의의 맡은 교원이 임의로 교재를 바꾸거나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하여 강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둥지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교육의 목표, 교원의 자질, 교재의 개발, 교수법의 선진화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전문대학이나 사립대학을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능력도 갖추지 못해서 한국어 관련 직종에 취직하지 못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대학이 민영기업과 공동 설립한 역산학원의 한국어학과는 2012년 졸업생 45명 중에서 현재 한국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학생은 7~8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동안 급격히 발전해 왔던 산둥지역의 한국어학과가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둥지역 한국어학

과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3.1. 교원의 자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자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산둥지역의 국립대학을 제외하고 전문대학과 사립대학 한국어학과 교원들의 자질은 보편적으로 낮은 편이다. 주요 문제는 많은 교원들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언어학이나 국어국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어휘, 문법, 쓰기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서 수업 중에 나타나는 상황에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부한 한국어와 문학 및 문화 지식을 갖추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교원은 한국어 기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질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심리학, 국어교수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수법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에 의한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증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교원들에게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이런 해외 한국어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참가 인원 수가 많이 제한되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정부에서 해외 한국어교원 연수에 대한 지원을 대폭으로 확대시켜서 한국어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나 도시에 돌아가면서 순회 연수 프로그램이나 시범수업을 진행하여 현지의 모든 한국어교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2. 교수법의 문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아직까지 강독식이나 문법해석식의 수업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게 한다. 결국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통적인 교육자 중심적인 교수법에서 학습자 중심적 상호작용식 교수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 과정, 교육 방법 및 교육 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학습자에게 자신이 학습할 내용과 방법의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여 학습자의 자율적,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교육자가 새로운 교육방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신의 소질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3.3. 교과목의 문제

지금 중국대학의 한국어학과의 교과목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서로 분리된 과목을 개설하고 따로따로 가르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 발화의 생산과 수용은 분리할 수 없으며, 구어와 문어의 상관성도 이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목들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형으로 교육해야 한다. 실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읽기-말하기’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언어 기술을 연계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읽기 활동을 할 때 단지 내용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게 하거나, 읽은 내용을 요약하게 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별 연계 활동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의 기술 훈련을 통해 습득한 의사소통능력이 다른 기술과의 통합 활동을 통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²⁾

3.4. 교재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사용률이 높은 교재는 대부분 한국에서 편찬하고 다시 중국으로 도입한 것들이다. 이들 교재는 비교적 잘 만들어진 것이지만 중국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중국 내 대다수의 대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한·중 수교 직후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주요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표준한국어』 교재를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질적·양적으로 4년제 학부생의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다른 교재들도 내용 면에서 대부분 문법 위주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 한국의 일상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교재의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국 국내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 맞는 실제적 과제와 활동이 반영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중 양국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합 교재개발팀을 구성하여 좋은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교재의 개발 방향은 우선 교수 학습 대상이 중국 국내 학습자인 만큼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흥미가 유발되는 학습 주제로 교재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재 내용 측면에서 한국문화 교육은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상문화와 사회·경제 문화 등이 교재 내용에 포함되어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세대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흥미로운 시청각 내용이 풍부한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방송통신대학교출판사, 2011, 22면

4. 중국 한국어교육의 발전방향 및 전망

4.1.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향상으로의 전환

지금까지 산둥지역의 한국어교육은 교육의 질적 향상보다 인재의 대량배출에 주력했다. 그 결과로 한국어학과의 계속 늘어나고 한국어 인재의 과잉배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유능한 한국어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원인은 한국어교육의 질이 높지 않아서 사회 수요에 맞는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질을 대폭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한국어교육은 상호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언어 활동의 목적은 의사소통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상호활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실 활동도 교실 밖의 실세계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맥락과 상황, 기능을 고려하여 실제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상호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상호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짝 활동, 소그룹 활동, 전체 그룹 활동 등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짝 활동을 포함한 소그룹 활동은 보다 많은 상호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4.2. 한국어교육에서 한국학 교육으로의 전환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과목의 설정은 언어 습득 영역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한국어학과의 교과목 설정에서 보통 1~3학년에는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기능영역의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4학년에 올라가서 한국문학, 한국경제 등 한국학 관련 과목 및 한중 번역, 경제무역한국어 등 실용 과목을 개설한다. 문제는 4학년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학 관련 과목을 제대로 공

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급 단계에서는 언어 능력의 신장이라는 목표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학년 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퇴화하는 현상도 발생하곤 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1~2학년은 언어기능교육, 3~4학년은 응용 교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기초단계부터 고급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언어교육과 인문교육, 사회과학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학과의 교육 목표나 교과목 개설 등 여러 면에서 대담한 개혁을 해야 한다. 언어 차원을 넘어선 한국학 전반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³⁾이 제기된다.

5. 결론

현재 중국 산둥지역의 국립대학, 전문대학 및 사립대학을 포함한 40여개의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는 종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보통 4년제인데 비하여 전문대학이나 사립대학은 주로 실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보통 3년제이다. 이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 수는 약 6,000명 정도이며 해마다 약 1,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2010년 이후 한국어학과 졸업생의 취직이 어려워져 한국어학과 학생 수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한·중 양국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많아짐에 따라 산둥지역의 한국어학과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어 인재의 과잉배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적합한 한국어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원인은 한국어교육의 질이 높지 않아서 사회 수요에 맞는 한국어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3) 김 철,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어제와 오늘 및 그 미래』, 『한중인문학연구』 제 24호, 중한인문학회연구회, 2008

앞으로는 산둥지역 한국어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향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①한국어교원의 자질부터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젊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에 가서 순회 교원연수 프로그램이나 시범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교수법을 개선해야 한다. 전통적인 강독식이나 문법해석식 교수법에서 멀티미디어 상호작용적인 교수법으로 전환시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③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진적인 교수법이 반영되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④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교과목을 서로 연계, 통합하여 교육하면 좋을 것이다. ⑤앞으로 산둥지역 한국어학과의 발전 방향은 기존의 한국의 언어교육에서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한·중 FTA가 정식으로 비준되고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 및 협력이 한층 더 발전되어 앞으로 중국 특히 산둥 지역의 한국어 수요가 더 많아질 예정이니 한국어교육의 전망이 여전히 밝다고 본다. 앞으로 중국 산둥지역의 한국어교육은 선진적인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 철,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어제와 오늘 및 그 미래」, 『한중인문학 연구』 제24호, 중한인문학회연구회, 2008.
- 우영란,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전망-산동성의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제73호, 한국어교육학회, 2006.
-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방송통신대학교출판사, 2011.

【Abstracts】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n Education in Shandong Province of China

Li Hao

This article analys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Shandong Province, China through a temporal investigation on Korean majors of universities in Shandong area. Furthermore, this article also explored the developing directions and prospects of this issue.

After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1992, the need for talented personnel who can speak Korean has been increasing and at the same time, Shandong Province can be seen as the most concentrated destination for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China. At present, more than 40 universities including public universities, private universities and community colleges inside Shandong area have set up Korean major. In these universities approximately 6000 students are majoring in Korean Studies and 1500 graduates will graduate from this major every year.

However we can not ignore the increasingly obvious problems such as teaching objectives, qualification of lecturer and advancement of teaching method. We expect that the today's Korean educational system in Shandong area which is concentrating solely on language itself can upgrade into studies on all aspects about Korea.

Key words: Korean Education in China, Shandong, Current Status,
Prospects

이 논문은 2016년 1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19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